



##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입법 공청회 개최 인쇄 포함 의류봉제, 주얼리, 기계 등 4개 업종 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9월 26일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공동대표 정세균, 전순옥 의원) 주최, 전순옥 의원 주관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12호)에서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대상에서 인쇄업을 빼지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인쇄인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에 따라 지원법 대상에 포함키로 최종 결정됐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 다수 국회의원 참가로 높은 관심 확인

민주당 정호준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입법공청회는 전순옥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전병헌, 장병완, 조경태, 전정희, 이원우, 이상직 의원(이상 민주당)과 김환규 의원(새누리당) 등의 양당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전순옥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정세균 전 대표가 같이 하기 때문에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매우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관계 기관 관련자들에게 감사한다. ‘노동이 답이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넓고 허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종사자들이 63만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에는 고속권 기술자들이 많이 있다”면서 “기존 법률로는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내놓은 고용률 70%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주로 서비스산업, 미래 신성장 산업에 치중돼 있는데, 제조업 속에서 실질적인 해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세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순옥 의원과 함께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을 출범시켰는데, 도시에 있는 서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입법공청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시 서민의 일자리 상황은 위험수위에 처해있다. 도시는 제조업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이 입법에 성공하면 19대 국회가 옥동자를 낳는 것과 같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실현 가능한 것부터 법제화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보완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두 분은 비례대표 1번과 지역구가 정치 1번지 종로구인 민주당의 대표 의원들이다. 이러한 투톱의 대표 의원이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상공인이라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소공인이라는 말은 솔직히 낯선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



공청회를 주관한 전순욱 민주당 의원



정세균 민주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안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사회를 맡은 정호준 민주당 의원



주제발제를 한 한정미 박사 의원

문에 이 자리가 소공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뤄졌다. 이는 소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병안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공인이라는 단어가 낯선데, 지금껏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이런 가운데 법률적 제도적 지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지원법의 입법을 이끌고 있는 전순욱 의원과 정세균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이고,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이렇게 귀중한 법안은 전순욱 의원과 정세균 전 대표가 아니면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면서 “여기 이 자리에 많은 유능한 의원들이 참석한 만큼 잘 준비될 것으로 생각하며, 국회에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힘을 보탤다.

### 인쇄문화산업진흥법과 별도로 지원법 추진

2부는 윤병섭 교수(서울벤처대학교 경영학 박사)가 좌장으로 한정미 박사(한국법제연구원)의 주제발제에 이어, 남윤형 박사(중소기업연구원), 김의승 과장(서울시 경제진흥원 경제정책과), 이인섭 과장(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조병선 교수(숭실대학교 중소벤처학과), 장정건 전무이사(한국리츠산업협회), 곽의택 회장(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 등의 지정토론이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김의승 과장은 지정토론 순서에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쇄업을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과는 목적과 대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개별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의 제정 배경과 필요성,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정 배경 및 필요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 초점을 두고 시행돼 왔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여러 정치적인 상황을 미뤄봤을 때 앞으로도 소상공인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공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이나 여타한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등으로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결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도 소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고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는 관계법령에서도 소외된 소공인을 위한 별도의 근거 법안이 필요하다.

### 제정 법률안 제안 이유

정책대상인 소공인들 대부분이 도심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들로 관련 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동종 업종 간에, 혹은 관련 산업들이 자발적으로 집적화돼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생산 활동을 한다. 이러한 도심지역 집적화 현상을 시장접근과 인력수급이 용이하고, 편리한 이동 및 관련 산업과의 접근성 등의 이유로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이로 인한 신규인력 유입 단절, 고령화 등 스스로 성장하기에는 한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을 통해 그동안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소외됐던 제조업, 특히 소규모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의 제조환경과 제조업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시서민층의 안정된 일자리, 도심 속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법안제정을 하고자 한다.

### 제정 법률안 주요 내용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법안의 구성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제2장).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진 제조업으로서 숙련된 인력의 수급과 양성이 아주 중요하므로 숙련기술의 저변 확대, 숙련기술의 유지 및 전수를 위한 교육과 숙련기술인력 발굴과 기술인력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를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제3장).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특성에 따른 집적지별 특화, 집적지내에 협업화, 공동사업 등 활성화하기 위한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환경개선 및 지원센터 운영,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제4장).

소규모 영세한 사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도 포함한다(보칙).